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보고 듣고 맛보는 이놈은 뭇꼬”

#### 철야정진법문 ②

요새는 눈이 보는 거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아마 이 방 중에 한 여남은 명 있을 거여, 아는 사람, 한 이십 명 있을 겁니다. 눈이 보는 것 아니다. 그러나 눈을 빌어서 보긴 봐. 보지 않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눈에는 자체지가 없습니다. 자체지, 자체의 지혜가 없어요. 거울 역할은 합니까. 이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엔 견성도 이만 저만한 견성 안 하고는 이거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여러분 알거든요. 눈에 자체 지혜가 없어. 눈도 이거 하나 적절구 백혈구 그거로서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서 거울 역할만 해 주는 거예요.



철야정진에 참여해 참선중인 어린중학생을 대견해 하신 생전의 백봉김기추 거사

귀에 자체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 헛바닥, 자체 지혜가 없습니다. 자체 지혜가 없지만 맛을 봐. 아, 이거 이상타. 맛보는 건 뭇꼬? 요새는 압니다. 그렇다면 자체 지혜가 없는 눈, 보는 것. 자체 지혜가 없는 귀, 듣는 것. 자체 지혜가 없는 맛보는 거, 다른 것 그렇습니다. 대체 이 놈이 뭇꼬냐 말이며. 있긴 있거든. 있긴 있어.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보지 않냐? 내가 본다 내가 맛 본다 이러지만 그 내라는 놈은 아무 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며. 뭇을 내라 하느냐 말이며.

그러나 요새는 이걸 압니다.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방편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말했지만 이 세 가지 요소를 아는 사람의 방편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모르는 사람의 방편, 같아야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하니 만약 이 세 가지의 요소, 참말로 견성을 완전히 했다면 환히 아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때까지 내가 속았구나. 아, 눈이라는 건 자체 지혜가 없구나. 말 맞거든요.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 귀도 이거 자체 지혜가 없구나. 의사가 환히 압니다. 뭐뭐 하더라도 사람의 몸뚱이에 대해서 환히 아는 것은 의심입니다. 헛바닥에 자체 지혜가 없다.

그러면 맛보고 보고 듣는 이 놈은 뭇꼬, 의심이 날 수밖에. 그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절대성 자리라고도 하고 별별 말로 말해봅니다만 이걸 끈이 안 들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이러면 대개 중생들이

섭섭한 모양이라. 뭇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여. 그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라 하면 신(信)이 안 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걸 어렵다는 겁니다. 이 몸뚱이는 시시로 변하는 것.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 할 때, 시작할 때와 지금과, 지금도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는 걸 견어 잡고 이걸 내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 그

“  
내가 ‘보고 듣고 맛본다’ 하나 몸뚱이에는 자체지혜가 없어 빛깔·소리·냄새 없는 자리가 마음·성품이며 절대성 지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거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하니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여러분에게 내가 아는 정도 전부 말했어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는 건 문제 밖입니다. 눈에 자체성이 있다 이래도 좋습니다. 귀에 자체성이 있다 이래도 좋습니다. 헛바닥에 자체지가 있다 이래도 좋습니다. 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몸뚱어리 전체로 봐서 자체 지혜가 없습니다. 유정물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좋아요. 그렇게 밖에 말할 도리가 없거든요. 다만 이걸 보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는 거 그거는 딴 지립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이 선생 말과 마찬가지로 대승으로 가든 소승으로 가든, 자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다 알아. 알면은 또 판짓 하고 돌아다니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하니 이전 어른들이 공부할 때와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수단과 방편을 달리 해서 우리도 공부하자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눈이라는 건 자체 지혜가 없구나.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석가세존이 오시더라 해도 이 이상 더 설명 안 됩니다. 뻔한 것이거든. 귀라는 건 자체의 지혜가 없구나.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헛바닥이라는 건 자체의 지혜가 없구나. 그러니까 몸뚱이 자체가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변하는 거라. 법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변하는 거라. 그럼 이거 내 것 아니거든. 이걸 내 것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말이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지.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내 것이 아닌 이 몸뚱이를 끌고 여기까지 왔다 말이지. 끌고 여기까지 오신 것은 절대성자리, 그 자리거든요. 지혜 자리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설명이 필요 없어. 이거 알아버리면, 앞으로 내가 얘기할 것이 좀 있는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벌써 견성했어요.

견성, 뭇이 견성입니까? 성품을 본다 이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오뉴월에 이 몸뚱이를, 이 무정물을, 다시 말하자면 무정물이라 합시다. 무정물을 끌고 여기 왔다 말이며. 철야정진 하러 왔다 말이며.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본래 양심에 돌아감이 ‘지심귀명례’

#### 4-1. 귀경례(歸敬禮)

그리고 이는 신심(信心)의 극(極)을 표시하는 말이다. 믿는 마음의 극상(極上)을 표시하여 귀명(歸命)이라고 한다. 신하가 임금을 안 믿으면 신하 노릇도 안 된다. 부부간에 친구사이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신(信)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 그러므로 신의(信義) 즉 믿는 마음의 극을 표시하는 데는 오직 귀명을 끌어온다.

그런데 돌아가는 바의 일심(一心)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 하면 그것은 삼보(三寶)이다. 밝고 바르고 사이 좋은 평화로운 그곳, 광명(光明)과正大(正大)와 화합(和合)의 그 절대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목숨을 돌이켜 놓는다. 이 목숨을 돌이킨다는 말 가운데에는 그것이 첫 번째이면서 설상 두 번째라는 뜻이 들어 있다. 이를테면 환원지(還源之義)가 들어 있다.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우리 중생(衆生)은 눈과, 귀와, 코와, 맛을 아는 설근(舌根)과 촉각으로서 신근(身根)과, 의식 작용하는 의(意) 즉 안이 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의 육근(六根)을 가지고 있으며 이 육근은 한 마음으로 좇아서 일어난다. 그러면서 육근은 항상 그 근원되는 마음과는 등지는, 배반하는 일이 많다. 좋은 것을 보면 탐심이 생기고 귀에 솔깃한 소리를 들으면 그리로 쏠리고 구수한 냄새를 맡으면 그만 혀가 동한다. 그러하여 정상적인 자기 본 마음과는 늘 배치되는 행동을 하기 일췌하다. 치산육진(馳散六塵)이라는 것이다.

육진(六塵)은 육근의 대상으로서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여섯가지다. 눈으로 보는 대상은 색(色), 귀의 대상은 소리, 코의 대상은 후각으로 맡는 냄새, 혀로는 맛을, 몸으로는 촉각(觸覺)을 의(意)로는 삼스카라(Samskeeras)인 무릇 만들어진 개념에 얽매게 된다.

욕을 보면 갖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즐기고, 맛을 보고 싶고, 아름다움에 빠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기울어지고, 이렇듯 육진에 자꾸 치산(馳散)해서 한정함이 흩어져 돌아다닌다. 얽매고 끌려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궁리를 하고 허둥거린다. 그러므로 이런 저런 잡동사니 허튼 생각일랑 다 버리고 본래 일심(一心)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며 이를 환원지(還源之義)가 있다고 하고 귀명(歸命)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하는 것은 목

숨을 돌이켜 가장 높으신 어른, 부처님께 나의 이 목숨을 바치나이다 하는 소리가 되지만 그 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자기 본래의 양심에 돌아간다는 뜻이다. 자기의 지성스런 생각을 낸다는 것은 자기 내부의 지성스런 자리에 돌아가 있다는 소리가 되며 그라이만 의의가 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 귀명(歸命)하는 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범부(凡夫)에서 비롯하여 성인(聖人)에 이르기까지 사람에게는 제각기 여섯가지의 힘이 있다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고향질러 우는 것이 힘이다. 무조건하고 억지를 부려 울어대어야 모든 일이 된다.

여자는 바가지 굵은 것이 힘이다. 성질을 내어 포퓰 포퓰 쓰아붙일라치면 남자는 그만 바가지 소리가 귀찮아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준다. 바라문(婆羅門), 공부하는 사람은 참는 것이 힘이다. 모든 일을 항상 신중히 생각해서 하되 다른 사람보다 아주 내 몸을 낮추어서 말한다. 그 참고 인내하는 것이 힘이 된다.

왕은 버티는 것이 힘이다. 거만하게 턱

“  
“지극히 목숨 돌이켜 절합니다” 믿는 마음 극상표시가 ‘귀명’ 돌아가는 ‘一心’ 삼보에 두는 광명·정대·화합의 절대 자리

버티고 도사리고 앉아 있어야 그 위엄에 억눌려 모든 일이 명령대로 된다. 정치하는 자들은 세력을 모아 가지고 버티고 앉아서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서 능사를 삼는 비민주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아라한(阿羅漢), 학자는 정진(精進)하는 것이 힘이다. 전문적으로 연구에 모든 힘을 기울여 오로지 정진할 따름인 것이다.

부처님은 사랑의 대자비(大慈悲)로써 힘을 삼는다. 이렇듯 지심귀명(至心歸命)이 제각기 다르지만, 우리가 오직 부처님만을 대은교주(大恩教主), 사생자부(四生慈父), 삼계대사(三界大師)로 받들어 모시는 까닭은 그가 대자대비(大慈大悲)하시기 때문이다.

삼계(三界)는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이름이다. 욕계는 현실의 물질세계(物質世界), 색계는 준이상세계(準理想世界), 무색계는 이상세계(理想世界)다. 부처님은 이상계의 큰 스승이었다. 사생(四生)이란 인도 사상으로 생물의 태어나는 양상을 네가지로 분류한 것. 태란습화(胎卵濕化)로 나누었는데, 물론 오늘날 생물학의 분류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지만, 약기(略記)하면 다음과 같다.

태생(胎生)은 어머니의 태(胎)로서 분만되는 형태. 난생(卵生)은 알로서 태어나는 것. 습생(濕生)은 시궁창의 질척 질척한 습기 속에서 벌레며 박테리아등속이 생겨나는 것. 화생(化生)은 이끼며 곰팡이 등이 화해서 돌아나는 것을 말한다. 부처님은 이 사생의 자비스런 아버지이기도 하다. 아등본사(我等本師)는 우리의 근본 스승이시라는 것.

불(佛)은 각행(行覺)이 공만자재(窮滿自在)한 분을 이르는 말이다. 깨달은 행위가 자유 자재하여 꼭 찻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색용(色用)을 칭찬해서 오근(五根)이 서로 잘 쓰이고 심신(心身)이 서로 잘 짜여서 자재(自在)하다는 것인데 오근호용(五根互用)은 열반경(涅槃經)의 팔자재(八自在)를 설명하는 글 가운데 나오고, 심신상작(心身相作)은 화엄경(華嚴經)의 십지품(十地品)에서 말하였다. 이렇듯 우리가 칭찬하는 불(佛)이란 그가 깨달았다든지, 깨쳐다든지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망녕된 생각을 떠난 것을 말함이다. 망녕되어 허둥지둥하는 그런 것은 미(迷)해 있는 상태며, 이와는 달리 그 지혜(智慧)스럽고 덕화(德化) 있는 것이, 조금도 암영(暗影)이나 어두운 구석이라고 없이 눈부신 광명(光明)이 두루 비쳐서 변조법계(遍照法界)해서 우주의 어느 곳이나 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또한 이것이 평등하여 돌이아니고 그자재가 항상 큰 지혜의 광명을 발한다는 것을 각(覺)이라고 하며 깨쳐다하고 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희 채정복) 전 3권(민족사)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갑오년 새해 첫 무료보시 단행

- 법당앰프 일절 설치주문시 ➔ 무선마이크 1세트 추가 무료보시
- 법당전용스피커만 주문시 ➔ 고급 YD-675 마이크 무료보시

(무료 보시 기간 : 2014년 1월 29일 까지 주문분에 한함) 위 기간내 주문하실 경우 실제 설치는 2월 중에도 설치 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고성능 구즈넥마이크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 스님들께서 원하시던 꿈의 마이크 탄생!

### 모든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이 될 것입니다!!

(보시품으로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립니다)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지향성 : 단일 지향성  
주파수특성 : 50-14,000Hz  
대응강도 : -35±1dB  
출력 임피던스 : 500옴

가격 : 2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발 송 : 입금 후 주소를 Fax나 문자로 주시면 3일 이내에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 주문처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TEL 02)2697-9976 / FAX 02)2601-8284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학장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